

보조용언 ‘쌓다’의 문법화 정도의 방언 분화

김 고 은*

I. 서론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보조용언 ‘-어 쌓다’¹⁾가 ‘-어 대다’와 유사하게 주로 반복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결합하여 반복이나 강세 혹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명희 1984, 이상태 1985, 김영신 1998). 이선웅(1995: 83-84)에서도 보조용언 ‘쌓다’는 ‘대다’에 비해 의미 추상화가 더 진척되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 행위와 관련이 적은 독자적인 강조 표현에도 사용될 수 있다고 했으나 일부 동사와의 결합만 가능하다고 보고 상태 술어와의 결합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들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바로 방언 간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쌓다’는 방언마다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이 다르고, 그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의미도 다르게 나타난다.

(1) <충남 논산>

꽤 대서 두디려서 그냥 나근나근나그나게 해가꾸 해디리문 이뿌지.
(꽤 대서 두드려서 그냥 나긋나긋하게 해가지고 해드리면 예쁘지.)

<경남 울주>

그따무네 오:리지베가는 오시 별또로 익꼬, 뱀새가 나사:가주고.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 과정

1) 앞으로 본고에서 제시된 ‘쌓다’와 ‘대다’는 특별한 설명이 없는 한 보조용언으로 쓰이는 ‘-어 쌓다’와 ‘-어 대다’의 ‘쌓다’와 ‘대다’를 말한다.

{그 때문에 오리 집에 가는 옷이 별도로 있고, 냄새가 나 땀아 가지고.}

〈경남 남해〉

내가 그마 오~올또 아파사서

{내가 그냥 오늘도 아파 땀아서}

(1)은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3)에서 나타난 보조용언 ‘땀다’의 쓰임이다. (1)을 살펴 보면, 충남 논산에서는 ‘땀다’가 ‘패다’와 같이 동작의 반복이 가능한 동사와 결합하여 행위의 반복을 표현하고 있다. 경남 울주에서는 ‘땀다’가 ‘(냄새가) 나다’와 같이 다소 상대적인 동사와 결합하기도 한다. 경남 남해에서는 ‘땀다’가 ‘아프다’와 같이 [동작성]과 [반복성]이 전혀 없는 형용사와 결합하기도 하는데, 이는 기존 논의와 배치되는 용례이다. 이 용례에서 본용언 ‘아프다’는 [반복성]을 가지지 못하므로, ‘땀다’의 의미도 ‘반복’이기보다 ‘강조’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목지선(2013)에서는 ‘땀다’가 ‘대다’에 비해 그 의미가 추상화되고 결합 가능한 동사의 종류나 통사적 제약에서도 자유롭다고 지적하였다. 이는 ‘땀다’의 특성에 관한 의미 있는 고찰이며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논의에서 방언 차이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으면서 동남방언에서만 용언이 가능한 듯한 예문들을 논의의 바탕으로 쓴 것이 아쉽다. 본고는 ‘땀다’의 통사적·의미적 특성은 방언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는 정확히 기술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본고는 ‘땀다’의 방언 분포를 결합 가능한 본용언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관찰은 결국 ‘땀다’가 각 방언에서 어느 정도의 문법화를 거쳤는가와 관련이 있다. 곧 살펴보겠지만, ‘땀다’는 남부를 중심으로 문법화가 진행됨에 따라 반복이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동작성]이나 [반복성]과 관계 없는, 형용사와도 결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에 따라 ‘땀다’의 의미도 반복 혹은 반복을 전제한 강조에서 반복을 전제하지 않은 강조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물론 이와 같은 ‘땀다’의 문법화는 방언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땀다’의 문법화 과정을 통

시적인 ‘-어 잇-’의 발달에 비추어 설명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 본용언 ‘웃다, 먹다, 죽다, 비쁘다’와 결합한 ‘쌓다’의 방언 분포를 방언 지도를 통해 살펴본다. 4장에서는 ‘쌓다’에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을 ‘반복 술어, 완성 술어, 달성 술어, 이동 술어, 상태 술어’로 나누고, 각각의 용언 부류에 따른 방언 분포를 설명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5장은 결론으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하겠다.

II. ‘쌓다’의 문법화 - ‘-어 잇-’과 비교하여

보조용언은 ‘같은 형태의 본용언에서 의미의 확대, 추상화 과정을 거쳐 상과 양태와 같은 문법범주를 표현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문법화를 거친다고 할 수 있다(박선옥 2004: 150). 이러한 문법화는 보조용언 구성의 ‘쌓다’ 역시 겪은 것이다. 본용언으로 쓰이는 ‘쌓다’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는 의미를 가진다.²⁾

이 ‘쌓다’가 보조용언으로서 기능하게 되면 ‘겹겹이 포개다’의 어휘적 의미가 추상화되어 ‘반복’이라는 상적 의미가 강화된다. 즉 ‘쌓다’가 결합하면 본용언이 지시하는 어떤 행위가 일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 혹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만일 본용언이 문법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는 보조용언이, 더 높은 수준의 문법화를 겪게 되면 어떻게 될까. Bybee(1985: 138)는 어휘적 의미가 추

2) 《표준국어대사전》에서 제시한 ‘쌓다’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에 …을】

여러 개의 물건을 겹겹이 포개어 얹어 놓다.

[2] 【…을】

「1」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얹어서 구조물을 이루다.

「2」 말바탕을 닦아서 든든하게 마련하다.

「3」 경험, 기술, 업적, 지식 따위를 거듭 익혀 많이 이루다.

「4」 재산, 명예 또는 불명예, 신뢰 또는 불신 따위를 많이 얻거나 가지다.

상화되어 문법적 의미를 갖게 된 후의 문법화 과정으로 ‘사용 영역이 잇달아 확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를 보조용언의 문법화에 적용한다면, 보조용언이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짐에 따라 더 많은 용언에 대해 상적 의미를 부여하게 될 수 있음을 뜻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에서는 통사적인 ‘-어 잇-’의 발달이 이와 같은 보조용언 구성의 문법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언화(2007)에서는 통사적으로 보조용언 ‘-어 잇-’은 ‘-엇-’이 되면 음절의 축약이 일어나고 더 문법화가 진행되어 선어말 어미의 기능으로 과거 시제나 완료상의 의미로 변하게 된다고 보았다. 특히 ‘-어 이서’는 ‘-에서’를 거쳐 어말 어미 ‘-어서’로 문법화되는데, 중세 국어에서 형용사와 통합한 ‘-어서’의 예는 드물지만 현대 국어에서는 형용사와의 통합이 매우 자유롭다고 한다. 즉 보조용언 구성 ‘-어 이서’가 문법화를 통해 어말 어미 ‘-어서’가 되는 과정 중에 본용언 선택의 유연화가 나타나고 그 쓰임이 더욱 활발해졌다는 것이다.

그런데 경남, 전남의 ‘쌍다’를 살펴보면 이와 매우 유사한 본용언 선택의 유연화를 관찰할 수 있다. (2)는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3)에 나타난 경남, 전남의 ‘쌍다’이다.

(2) <전남 곡성>

막 문대 싸니까.
(막 문질러 대니까)

<경남 창녕>

물로 무거사아서 조갈빠~이라 캐썸니다.
(물을 먹어 대서 조갈병이라고 했습니다.)
마 손자들 그 근저러산능게 애가 싸:서.
(뒤편 손자들 그 굵어 쌍는 것이 애가 쓰여서.)
고기는 즈그 그거 저그 팔쩍 팔쩍 따:싸테예.
(그것은 저거 그거 저거 팔쩍 팔쩍 뛰어 쌍데요.)

<경남 남해>

비 노 노다지 비가 아상:게 무리드로:도 게항꾸로.
(비 노 노다지 비가 와 쌍으니까 물이 들어도 괜찮도록.)
내가 그마 오~올또 아파사서

{내가 그냥 오늘도 아파 썰아서}

<울산 울주>

그따무네 오:리지베가는 오시 별또로 익꼬, 냄새가 나사:가주고,

{그 때문에 오리 집에 가는 옷이 별도로 있고, 냄새가 나 썰아 가지고.}

<전남 광양>

늘거썰개 무리 무 모메 무리 몰라서 나는 모기 몰라썰:치만,

{늘었으니까 물이 몸에 물이 말라서 나는 목이 말라 썰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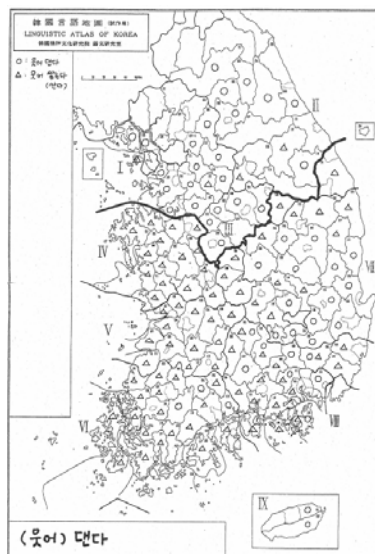
‘썰다’는 남부에서 ‘문지르다, (물을) 먹다, 뛰다’ 등 반복이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뿐만 아니라, ‘(홍년이) 지다’와 같이 내재적으로 완성을 함축하는 용언과도 결합하며, 더 나아가 ‘(목이) 마르다, 아프다’ 등의 상태를 표현하는 용언과도 결합할 수 있다. 즉 ‘썰다’는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본용언 선택의 유연화가 방언에 따라 확실히 관찰되는 것이다.

III. ‘대다’와 ‘썰다’의 방언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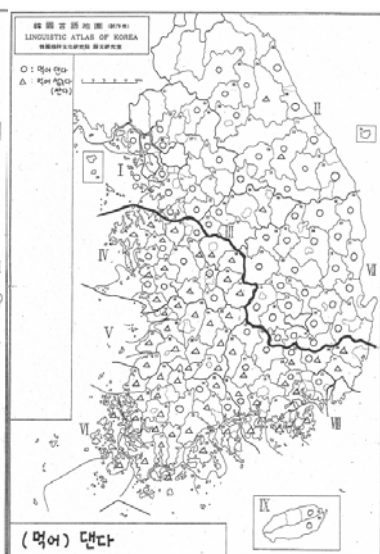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는 ‘대다’, ‘썰다’의 본용언으로 ‘바쁘다, 죽다, 웃다, 먹다’의 네 가지 용언이 제시되어 있다. 이들 용언과 ‘대다’, ‘썰다’가 결합한 구성의 방언 분포는 <지도 1-4>에서 나타난 것과 같다.

방언 지도를 요약적으로 살펴보면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 경기·강원 등은 ‘대다’를, 그 이외의 지역은 ‘썰다’를 주로 사용한다. 먼저 ‘대다’는 반복이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본용언과만 결합할 수 있고(‘웃어 댕다’, ‘먹어 댕다’), 그렇지 않은 본용언과는 결합할 수 없다(*‘죽어 댕다’, *‘바빠 댕다’). 이에 따라 ‘대다’를 주로 쓰는 경기·강원 등에서는 반복이 가능한 동작이 아닌 용언에 대해서 ‘썰다’, ‘대다’와 같은 보조용언 구성을 아예 사용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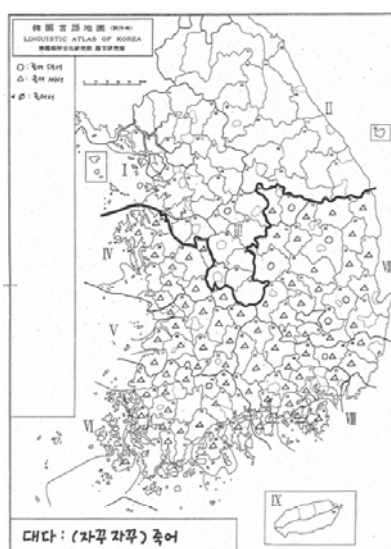
반면 ‘썰다’는 반복적인 용언뿐만 아니라(‘웃어 썰다’, ‘먹어 썰다’), 반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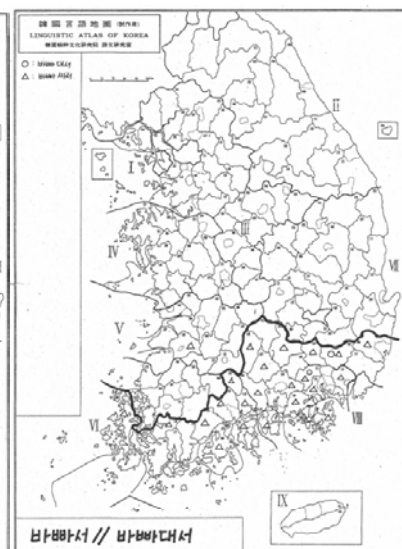
〈지도 1〉 ‘똥어 댄다’의 방언 지도



〈지도 2〉 ‘먹어 댄다’의 방언 지도



〈지도 3〉 ‘죽어 댄다’의 방언 지도



〈지도 4〉 ‘바빠 댄다’의 방언 지도

과 관계없는 용언과도 결합할 수 있다(‘죽어 썰다’). 경남과 전남의 일부에서는 ‘썰다’가 [동작성이] 결합된 형용사와도 결합하는데(‘바빠 썰다’), 이를 통해 ‘썰다’가 본용언의 제약에서 자유로움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경북에서는 ‘대다’가 결합 가능한 반복적인 동사에는 ‘대다’가 결합하고(‘웃어 대다’, ‘먹어 대다’) 반복과 연관이 떨어지는 동사에는 ‘썰다’가 붙어(‘죽어 썰다’), 혼재된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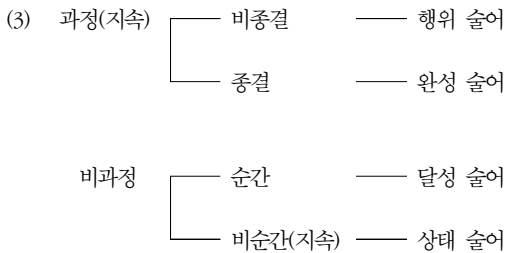
‘썰다’는 남부에서 ‘문지르다, (물을) 먹다, 뛰다’ 등 반복이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 뿐만 아니라, ‘(목이) 마르다, 아프다’ 등의 [상태성이] 강한 용언과도 결합할 수 있다. 즉 ‘썰다’는 보조용언의 문법화를 나타내는 현상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본용언 선택의 유연화가 방언에 따라 확실히 관찰되는 것이다.

IV. 본용언의 부류에 따른 보조용언 ‘썰다’의 방언 분포

먼저 조사대상이 되는 본용언은 원칙적으로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과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3)에서 ‘썰다’와 결합한 용언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이 ‘썰다’가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의 폭을 보여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용언 부류의 다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본용언에 해당하는 동사나 형용사를 임의적으로 몇 가지 추가하기도 하였다. 조사시 제보자들에게 함께 제시한 예문도 위 문헌에서 나타난 용례와 그 쓰임이 비슷하도록 구성하였다.

다음으로, 선정한 본용언들을 ‘썰다’와의 결합 양상을 잘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용언을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으로는 다양한 상이론들, Vendler(1967), Smith(1991), Klein(1994)과 이들을 한국어의 관점에서 수용한 정언학(2006)을 참고하였다. Vendler(1967)은 술어를 그 시간 도식에 따라 네 가지, 즉 행위 술어(activity terms), 완성 술어(accomplish terms), 달성 술어(achievement terms), 상태 술어(state terms)로 분류한다. 정언학(2006: 50-51)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먼저 어떤 술어는 그것이 시간 속에

서 지속되는 과정이나 아니냐에 따라 대별된다. 만일 그 술어가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과정을 묘사한다면, 그 과정이 종결성을 함축하지 않느냐 함축하느냐에 따라 다시 행위 술어와 완성 술어로 구분된다. 만일 논의의 대상이 되는 술어가 시간 속에서 지속되는 과정을 묘사하지 못한다면, 사태가 순간적으로 발생하느냐 지속되느냐에 따라 다시 달성 술어와 상태 술어로 구분된다. 이를 도식으로 나타내면 (3)와 같다(3)은 정언학(2006: 50) 인용.



그런데 Vendler(1967)의 행위 술어 중에는 특히, 그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어떤 행위가 반복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여부는 ‘썰다’의 특성을 밝히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냐하면 본래 ‘썰다’는 반복될 수 있는 행위와 결합하여 ‘반복’이라는 상적 의미를 표현하는 데에 쓰이기 때문이다. 앞서 살펴본 ‘웃다’, ‘먹다’ 등이 대표적인 반복 가능 동사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 Vendler(1967)의 이론과 그를 한국어에 적용한 정언학(2006)을 본고의 용언 분류의 큰 틀로 따르되, 행위 술어를 반복이 가능한 반복 술어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어떤 술어들은 ‘가다, 오다, 걷다, 다니다’ 등과 같이 개체의 이동을 나타내기도 한다(이익섭·채완 1999: 169). 이들 속에는 이동의 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것과 목적지에 도착함에 따라 행위가 반복되지 못하고 종결되는 것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걷다, 다니다’는 전자에 속하는 반면, ‘가다, 오다’는 후자에 속한다. 이처럼 동일하게 개체의 이동을 나타내는 술

어들 사이에도 [반복성]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본고에서는 이들 술어를 ‘이동 술어’로 따로 구분해서, ‘썰다’와의 결합 양상을 관찰하고자 한다.

본고의 방언 조사 지역은 경남·경북, 전남·전북, 충남·충북으로 한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지역이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 나타나는 전통적인 ‘썰다’ 방언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경기, 강원은 특정 용언(‘웃다’, ‘먹다’ 등)을 본용언으로 할 때나, 관용적인 표현으로 쓸 때를 제외하고는 ‘썰다’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썰다’ 결합 가능 지역을 본용언 부류에 따라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썰다’의 양상이 이들 지역 내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고의 방언 조사에 응한 제보자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지역과 제보자 정보

조사 지역		나이(성별)
경남	부산	18세(여)
	밀양	18세(여)
경북	포항	16세(여)
	구미	17세(여)
	예천	19세(남)
전남	해남	19세(남)
	보성	18살(남)
	여수	17살(남)
	광주	16살(남)
	곡성	19세(남)
전북	익산	16세(여)
	전주	19세(여)
충북	제천	18세(여)
충남	아산	19세(남)

제보자들의 나이는 주로 10대 후반이고 대부분 청년층에 해당한다. 이들은 ‘외가 및 친외가를 포함하여 3대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해 오는 집안의 60세 이상의 노인(정승철 2013)’은 아니기에 소위 ‘표준적인’ 제보자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썰다’가 공식적으로 해당 지역에서 얼마나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다. 더불어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과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3)의 제보자들과 상당한 세대차가 있으므로 각 지역에서 ‘썰다’가 어떻게 변모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1. 반복 술어

반복 술어는 Vendler(1967)의 행위 술어에 속하면서도, 행위의 반복이 계속해서 가능한 술어이다. 목지선(2013)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보조용언 ‘썰다’가 ‘반복’을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위의 반복이 가능한 동작 동사가 본용언으로 쓰여야 한다. 이러한 동사와 ‘썰다’가 결합하면 어떤 행위가 일회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 혹은 지속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리고 어떤 행위를 지속하거나 반복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강조 표현이 된다(이선웅 1995).

본고에서는 반복이 가능한 동작을 나타내는 용언인 ‘긋다, 기침하다, 뛰다, 먹다, 반짝이다, (노래를, 사람을) 부르다, 웃다, 주무르다, (말을) 하다’ 등과 ‘썰다’의 결합 양상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기존의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 반복이 가능한 동작 동사라고 볼 수 있는 ‘웃다, 먹다’와 ‘썰다’의 결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본고의 조사에서도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표 2>의 용언들과 대체로 결합이 가능하였다. 제보자들이 현재 청년층의 젊은 세대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보조용언 ‘썰다’의 가장 전형적인 본용언이라고 할 수 있는 <표 2>의 동사들에 관해서는 그 결합이 여전히 활발히 유지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만 ‘반짝이다’와 ‘주무르다’의 경우 ‘썰다’와의 결합이 방언마다 조금씩 차이가 보이는데, 먼저 (8)의 ‘반짝이다’의 경우 경남은 조사된 부산, 밀양

〈표 2〉 반복 술어

본용언	예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 옷다	명현이가 TV가 재밌는 지 옷어 쌓는다.	○	○	○	○	○	○
(2) 먹다	민수가 사과를 먹어 쌓는다.	○	○	○	○	○	○
(3) 굶다	철우가 피부가 간지러 운지 굶어 쌓는다.	○	○	○	○	○	○
(4) 기침하다	영희가 감기가 들었는 지 기침해 쌓는다.	○	○	○	○	○	○
(5) 뛰다	아이가 폴짝 폴짝 뛰 어 쌓는다.	○	○	○	○	○	○
(6) 부르다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쌓는다.	○	○	○	○	○	○
(7) (말을) 하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나니 지금은 온갖 소 리를 해 쌓는다.	○	○	○	○	○	○
(8) 반짝이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여 쌓는다.	○	X	△	X	X	X
(9) 주무르다	며느리가 시아버지 어 깨를 주물러 쌓는다.	○	○	△	△	X	X

두 지역 모두 가능한 반면, 전남은 해남, 여수만 가능하고, 경북, 전북, 충북, 충남에서는 완전히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는 ‘반짝이다’가 동작을 나타내기는 하지만 [상태성이 강한 동사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상태성이 강한 ‘반짝이다’는 동작의 반복을 나타내는 본용언을 요구하는 ‘쌓다’의 조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짝이다’는 “작은 빛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다”는 뜻을 가진 ‘동사’이다. 그러나 ‘반짝이다’는 조사된 다른 본용언들에 비해 그 작용이 순간적이고 오히려 상태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밝혔듯 만일 ‘쌓다’가 반복을 나타내기 위해서 [동작성이 [반복성이 강한 용언들과 결합해야 한다면, ‘반짝이다’는 이러한 조건에는 다소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쌓다’가 ‘반

짝하다’ 또는 ‘반짝반짝하다’와 무리 없이 결합할 수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짝’이라는 어근에 결합하는 ‘-이다’와 ‘-하다’를 비교했을 때 ‘-하다’의 [동작성]이 더 강하고, ‘반짝반짝’에서 ‘반짝’의 반복이 [반복성]을 강화한다고 가정한다면, ‘썰다’와의 결합에서 본용언의 [동작성], [반복성] 자질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썰다’의 문법화가 가장 많이 진전되었다고 여겨지는 경남은 ‘반짝여 썰다’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썰다’가 본용언의 [동작성], [반복성] 자질에 구애받지 않음을 관찰할 수 있다.

(9)의 ‘주무르다’의 경우 그 용언 자체는 행위의 반복이 가능한 동사로, ‘썰다’의 본용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경남, 경북의 제보자들은 모두 ‘주무르다’와 ‘썰다’의 결합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나, 전남, 전북의 제보자들은 각각 절반만이 그러하다고 판단하였다. 충남과 충북은 모두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현상에는 ‘주무르다’라는 용언 자체의 성격보다 ‘썰다’가 주는 부정적인 어감(nuance)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선옥(2004)에서는 ‘썰다’가 화용상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문미경(2008)에서도 ‘짜증’이라는 양태의 의미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전남의 한 제보자는 ‘주무르다’와 함께 제시된 예문에 대해 ‘며느리가 시아버지의 어깨를 주무르는 상황이 모종의 의도(재산 상속 등)에 의한 부정적인 것이라면 ‘썰다’와 결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양태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을 때, ‘주무르다’와 ‘썰다’가 결합 가능하다고 대답하였던 지역, 특히 경남·경북은 ‘썰다’에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이 내재되어 있지 않거나 그 정도가 약할 것이라고 추측해볼 수 있다. 목지선(2013)에서도 ‘썰다’는 긍정적인 상황이나 부정적인 상황을 가리지 않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와 두루 결합하여 반복적 강조의 의미로 쓰인다고 서술한 바 있다.

2. 완성 술어

완성 술어는 끝없이 계속해서 반복이 가능한 반복 술어들과 달리 내재적으로 완성을 함축하고 있는 술어이다. 가령 ‘(집을) 짓다, (의자를) 만들다,

〈표 3〉 완성 술어

본용언	예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 짓다	ㄱ. 농부가 이 밭에 고추 농사를 지어 쌓는다.	○	○	X	X	X	X
	ㄴ. 나라에서 신도시를 만든다고 건물을 지어 쌓는다.	○	○	○	X	○	○
(2) 입다	날이 추워져서 옷을 여러 겹 입어 쌓는다.	○	○	○	○	○	○
(3) 쓰다	ㄱ. 그 남자는 어제 월급을 받았다고 그새 돈을 써 쌓는다.	○	○	○	○	○	○
	ㄴ. 우리 동네 부자 영감은 인심도 써 쌓(아)서 참 고맙다.	X	X	X	○	X	X
	ㄴ'. 동생이 밥을 안 먹어서 엄마가 고기를 사 줘 쌓는다.	△	X	X	X	X	X

(옷을) 입다, (신을) 신다’ 등이 그러하다(정언화 2006). 이러한 동사들이 ‘쌓다’와 결합한다면 그 의미는 ‘시간을 두고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이 된다. 만일 복수의 주어와 함께 쓰이면, ‘복수의 주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행위를 완성시키는 것’을 뜻할 수도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완성 술어로는 ‘(건물을, 농사를) 짓다, 옷을 입다, (돈을, 인심을) 쓰다’ 등이다. ‘짓다’와 ‘쓰다’의 경우 완성 술어와 ‘쌓다’의 결합 양상을 보다 세밀히 검토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상황(각각 예문 ㄱ, ㄴ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각 용언의 예문과 지역별 ‘쌓다’ 결합 여부는 〈표 3〉과 같다.

경남과 경북은 (3ㄴ) ‘(인심을) 쓰다’를 제외하고 〈표 3〉의 완성 술어에 ‘쌓다’가 쉽게 결합하는 반면, 이외의 지역에서는 본용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전남, 충남, 충북은 ‘건물을 짓다’, ‘옷을 입다’, ‘돈을 쓰다’에는 대체로 기능하나 ‘농사를 짓다’, ‘인심을 쓰다’는 불가능하다. 전북은 ‘옷을 입다’, ‘돈을 쓰다’, 그리고 ‘인심을 쓰다’와 ‘쌓다’의 결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같은 본용언 ‘짓다’의 경우에 (1ㄱ)은 경남과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불가한 반면 (1ㄴ)은 대체로 모든 지역에서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짓다’의 주어가 단수냐 복수냐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다. (1ㄱ)은 단수 주어의 반복적 행위로, “농부가 수년 동안 어떤 밭에 고추 농사를 지음”을 의미한다. 이에 비해 (1ㄴ)은 복수 주어의 동시다발적 행위로, “나라의 주도로 여러 건물을 동시에 짓는다”는 뜻을 가진다. 빠른 시간 내에 완성이 되는 다른 동사들, 즉 ‘입다, 쓰다’ 등과 비교해 본다면 농사를 짓는 것은 무척 오랜 시간이 걸리고 이에 따라 [반복성]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단 (1ㄴ)과 같은 복수 주어의 경우 [반복성]이 확실히 인식되어 전복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쌓다’와 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경남과 경북은 (1ㄱ)과 같이 [반복성]이 떨어지는 상황에도 ‘쌓다’를 결합할 수 있어 문법화에 따른 본용언 선택의 유연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같은 본용언 ‘쓰다’에서도 (3ㄱ)과 (3ㄴ)은 ‘쌓다’와의 결합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앞의 반복 술어와의 결합을 통해 살펴보았듯, ‘쌓다’에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인 태도가 개입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문장에서 드러나듯 화자는 (3ㄱ)은 부정적으로, (3ㄴ)은 긍정적으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쌓다’의 양태는 (3ㄴ')와 같이 수혜의 의미를 나타내는 ‘-어 주다’와의 결합 양상에서도 드러난다. ‘사 주다’는 반복이 가능한 동작이므로 본용언의 자격이 되기에 충분하고, ‘쌓다’와 결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예문이 경남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비문이 되는 것은 ‘사 주다’가 다른 사람을 위해 행하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지역어조사보고서》(2005~2013)에는 (4)의 ‘인심을 쓰다’, ‘고기를 사 주다’ 등과 같이 긍정적인 상황 인식에서 ‘쌓다’가 사용된 용례가 있다는 것이다.

- (4) ㄱ. <경남 창녕> 참 동네 부자가 이스~옹께네 인심도 써사삼니다.
 [참 동네 부자가 있으니까 인심도 써 쌓습니다.]
 ㄴ. <경남 산청> 밥 안 머머 계기도 사주사꼬 알:사모.
 [밥 안 먹으면 고기도 사 줘 쌓고 이러면.]

앞서 언급하였듯 몇몇 선행 연구박선옥(2004), 문미경(2008) 등에서 ‘쌓다’가 부정적인 양태를 가지는 것으로 지적한 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본다면, (4)와 같은 용례를 보인 경남 노년층 제보자들에게는 ‘쌓다’가 부정적인 양태가 없이, 최소한 중립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노년층과는 반대로 본고가 조사한 경남·경북 청년층 제보자들은 ‘쌓다’가 긍정적인 상황과는 결합하지 못하며, 상황에 대한 ‘탐탁지 않음’이 암시되어 있다고 직접 설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보아 이들 지역에서 ‘쌓다’가 가지는 부정적 양태는 기존에 그렇지 않았던 경남 지역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반복 술어 ‘주무르다’가 경남·경북에서는 여전히 ‘쌓다’와 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쌓다’의 부정적 양태는 아직까지는 경남·경북에서 지배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³⁾

3. 달성 술어

달성 술어는 상태의 변화가 순간적으로 초래되는 사건을 나타낸다(정언학 2006). 가령 ‘죽다’나 ‘(과장이) 되다’ 등은 그 상태 변화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정할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초래된다. 달성 술어의 경우 단수의 주어가 그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생물학적으로 거듭 죽는다거나, 또 어떤 사원이 과장이 되고 나서 또 과장이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맥락에서 상상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달성 술어에 ‘쌓다’가 결합하기 위해서는 복수의 주어가 상정되어야 한다고 예상할 수 있다. 본고에서 조사한 달성 술어는 ‘죽다, (좋은 기계가) 나오다, (공무원이) 되다’이다. 함께 제시한 예문과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죽다’가 본용언인 경우(표 4) (1)를 살펴보자. 《한국방언자료집》

3) 태어나서 20년 동안 부산에서 거주한 필자 역시 ‘쌓다’의 의미가 전적으로 화자의 부정적인 인식을 내포하고 있다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다만 (4)의 예문 ‘할아버지가 나를 불러 쌓는다’에서처럼 행위의 주체가 존칭일 때는 다소 거부감이 있다.

〈표 4〉 달성 술어

본용언	예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 죽다	날씨 때문에 미꾸라지들이 자꾸 죽어 썩는다.	○	○	○	○	○	X
(2) 나오다	요새는 온갖 좋은 기계들이 나와 썩는다.	○	○	○	○	○	X
(3) 되다	같이 시험 공부를 시작한 친 구들이 나만 빼고 공무원이 돼 썩어서 기분이 안 좋다.	○	○	X	X	X	X

(1987~1995)에 따르면 본용언 ‘죽다’가 ‘썩다’와 결합할 수 있는 지역은 충청을 제외한 경남·경북, 전남·전북, 충남 지역이다. 이러한 ‘썩다’의 방언 분포는 본고의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본용언 ‘(좋은 기계가) 나오다’의 경우도 본용언 ‘죽다’와 동일한 방언 분포를 보인다.

방언 분포를 설명하기가 다소 난해한 것은 본용언 ‘(공무원이) 되다’의 경우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공무원이) 되다’는 경남, 경북 지역에서는 ‘썩다’와의 결합이 가능하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불가능하므로, 어찌되었건 이들 지역에서 본용언 선택이 더 유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썩다’의 문법화가 더 많이 진행되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를 설명할 단서, 즉 ‘죽다’와 ‘(공무원이) 되다’의 의미적 자질 차이는 현재로서는 밝히기가 어렵다. 이들은 모두 [-상태성], [+종결성], [-지속성]의 의미 자질을 동일하게 가지기 때문(정언학 2006: 88)이다. 즉 ‘(공무원)이 되다’는 ‘죽다’와 비슷한 정도로 적합하게 ‘썩다’의 본용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공무원)이 되다’는 경남·경북이라는 한정적인 분포를 가지는 반면 ‘죽다’는 전남·전북·충남을 아우르는 더 넓은 분포를 가진다.

4. 이동 술어

이동 술어는 ‘가다, 걷다, 기다, 날다, 다니다, 떠나다, 뛰다, 지나다’ 등의 동사를 일컫는다(이익섭·채완 1999: 169). 본고에서 조사한 이동 술어는

〈표 5〉 이동 술어

본용언	예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 걷다	개는 틈만 나면 길을 걸어 쌓는다.	○	○	○	○	○	X
(2) 다니다	그 사람은 면허를 딴 뒤 운전을 하고 다녀 쌓는다.	○	○	○	○	○	X
(3) 오다	세무서에서 사무실을 뒤풀러 와 쌓았다.	○	X	X	X	○	X
(4) 가다	아들은 부모님 명복을 빌기 위해 절에 가 쌓았다.	○	X	X	X	○	X

‘걷다, 다니다, 오다, 가다’인데, 이들은 다시 특정한 목적지 내지 방향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오다, 가다’는 전자에 해당하며, ‘걷다, 다니다’는 후자에 해당한다. 〈표 5〉는 이동 술어를 조사할 때 함께 제시한 예문과 그 결과이다.

먼저 (1) ‘걷다’, (2) ‘다니다’의 경우 충북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쌓다’와 결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오다’, (4) ‘가다’의 경우 경남과 충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쌓다’와의 결합이 불가능하다. 즉 경남과 충남이 이동 술어에 관해서는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많은 지역에서 ‘걷다’, ‘다니다’와 달리 ‘오다’, ‘가다’가 ‘쌓다’와 결합하지 않는 이유는 [반복성]이라는 의미 자질로 설명할 수 있다. ‘걷다’와 ‘다니다’의 경우는 ‘쌓다’와 결합하지 않아도 동사 자체적으로 반복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다. 가령 ‘걷다’가 일회적이기 위해서는 ‘딱 한 번 발걸음을 걷다’와 같이 부사어에 의해 그 일회성을 한정해 주어야 한다. ‘걷다’라는 행위는 지속적으로 다리를 움직여 바닥에서 발을 번갈아 떼어 옮김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걷다’와 ‘다니다’는 용언 자체로도 반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쌓다’와 결합하기에 무리가 없다. 이에 비해 ‘오다’, ‘가다’는 특정한 목적지 내지 방향을 포함하고 있어, 만일 목적지에 다다른다면 ‘오’거나 ‘가’는 행위가 종결되고 반복되지 않는다. 즉 ‘오다’, ‘가다’는 ‘걷다’, ‘다니다’에 비해 반복의 의미가 약하며, 이에 따라 몇몇 지

역에서는 ‘썰다’에 결합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동 술어 전반에 ‘썰다’가 결합 가능한 지역인 경남, 충남은 ‘썰다’가 본용언의 의미적 특성에 제약을 받지 않는, 유연한 모습을 보인다. 충북은 ‘썰다’가 ‘걷다’, ‘다니다’와도 결합하지 못하는 매우 제약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겠다.

5. 상태 술어

국어의 서술어가 가지는 내적 시간 구조의 파악하는 논의에서 대개의 기존 연구들은 상태 술어를 형용사(즉 국어의 상태 동사⁴⁾)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정언학(2006: 54)에 따르면 영어에서의 상태 술어는 ‘know/believe something, love/dominate somebody’ 등의 술어를 지칭하는 것이고, Vendler(1967)의 상태 술어에 대한 논의도 역시 이들 술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상태 술어의 상적 특성을 논의할 때는 위의 동사 군도 포함시켜 논의가 이루어 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고는 이러한 정언학(2006)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프다’, ‘예쁘다’, ‘깨끗하다’ 등의 형용사에 덧붙여 ‘알다’, ‘모르다’와 같은 사실의 인지와 관련된 동사들도 함께 상태 술어로 분류하였다. 더불어 ‘여기에 한 시간만 있어라’와 같이 동사적 용법을 보이는 ‘있다’도 상태 술어에 포함시켜 조사하였다.

상태 술어에 속하는 형용사는 기본적으로 [동작성이 없기 때문에 반복의 의미를 나타내기 힘들다. 이에 따라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도 ‘썰다’의 문법화가 활발히 진전되어 본용언 선택의 제약이 느슨해진 경남과 전남 해안지역에서만 ‘바빠 썰다’와 같은 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은 상태 술어와 ‘썰다’의 결합을 조사한 결과이다. 형용사인 (1-3)의 ‘아프다, 예쁘다, 깨끗하다’는 《한국방언자료집》(1987~1995)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경남에서 ‘썰다’와 결합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해남, 보성은 이들 형용사와 ‘썰다’의 결합이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는 《한국방언자료

4) 이익섭·채완(1999)에 따르면 상태 술어는 동작 동사와 대비되는 용어로, 주로 형용사를 의미해 왔다.

〈표 6〉 상태 술어

본용언	예문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1) 아프다	등산을 다녀오니 온몸이 아파 쌓는다.	○	X	X	X	X	X
(2) 예쁘다	그 여자는 너무 예뻐 쌓아서 남자들이 줄을 선다.	○	X	X	X	X	X
(3) 깨끗하다	방이 깨끗해 쌓(아)서 더 청소할 필요가 없다.	○	X	X	X	X	X
(4) 있다	그 남자는 방학이 되니 집에만 있어 쌓는다.	○	○	○	X	X	○
(5) 알다	내가 철우를 잘 알아 쌓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X	X	X	X	X	X
(6) 모르다	철우는 기본적인 예의범절도 몰라 쌓아서 정말 큰일이다.	X	X	X	X	X	X

집》(1987~1995)의 노년층 화자들이 ‘바빠 쌓다’를 사용한 것과는 대치되는 결과이다. 이를 바탕으로, 원래 ‘쌓다’가 형용사와 결합할 수 있었던 지역이 전남 해안 지역까지 아물었다면, 젊은 세대에 와서는 경남으로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짐작을 해 볼 수 있다. ‘쌓다’가 형용사와 결합할 경우 본용언 자체가 반복적 행위가 아니므로 ‘쌓다’의 의미는 반복을 전제하지 않은 ‘강조’가 된다. 즉 형용사와 ‘쌓다’의 결합이 가능한 경남에서는 ‘쌓다’의 상적 의미가 더욱 확대되고 추상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4) ‘있다’의 경우 [상태성이 강하기는 하지만, 주어진 예문으로 보았을 때는 ‘방학 내내, 방학 기간 중 매일매일’이라는 사건의 [반복성이 포함되어 있어 전북, 충남을 제외한 지역들에서 대체로 결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5)~(6)의 ‘알다’, ‘모르다’는 모든 지역에서 ‘쌓다’와 결합할 수 없었다. 목지선(2013)에서도 ‘쌓다’가 ‘알다, 모르다, 깨닫다’ 등의 인지 동사와의 결합에는 제약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간혹 ‘모르다’가 본용언으로 쓰이는 경우 가능하다고 판단한 제보자들이 경남·경북에 존재했는데, 이들은 ‘예의

〈표 7〉 ‘썰다’의 용언 부류별 분포

용언 부류	경남	경북	전남	전북	충남	충북
반복 술어	○	○	○	○	○	○
완성 술어	○	○	△	△	△	△
달성 술어	○	○	△	△	△	X
이동 술어	○	△	△	△	○	X
상태 술어	○	X	X	X	X	X

범절도 모르는’ 상황이 부정적임을 인식, ‘썰다’의 부정적 양태의 의미로 이러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여타의 상태 술어에서와 마찬가지로 ‘썰다’는 반복을 전제하지 않은 ‘강조’를 뜻하게 된다.

V. 결론

보조용언의 ‘썰다’는 그 기본적인 의미가 행위의 계속적인 반복 또는 지속이기 때문에, 반복이 가능한 동작 동사만이 ‘썰다’와 결합할 수 있다고 여겨져 왔다. 그러나 ‘썰다’는 방언마다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의 차이가 크고, 이에 따라 ‘썰다’가 가지는 의미 영역도 각기 다르다. 본고는 이러한 ‘썰다’의 특성을 밝히고자, ‘썰다’가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을 부류별로 나누고 각 부류가 ‘썰다’와 결합하는 양상을 방언 분포를 기술하였다. 이를 개괄적인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것과 같이 경남은 상태 술어 중 ‘알다’, ‘모르다’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본용언과 ‘썰다’가 결합할 수 있어 본용언 선택에서 매우 자유로운 반면, 충북은 전형적인 반복 가능 동작 동사와만 결합할 수 있어 본용언의 제약이 심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의 사이에 있는 지역들이 점진적으로 ‘썰다’의 본용언에 대한 유연화를 나타내었다.

본용언의 선택의 유연화는 보조용언의 문법화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보조용언이 결합할 수 있는 본용언에 대한 제약이 느슨해짐에

따라 더 많은 용언에 대해 상과 양태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고, 보조 용언의 사용 영역이 확대되는 것이다. 경남을 필두로 하여 ‘쌓다’는 이러한 문법화의 진전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남의 인근 방언으로 전파되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다면 왜 경남에서 가장 ‘쌓다’의 문법화가 두드러지는가. 경남에는 ‘쌓다’뿐만 아니라 ‘-어 빠/뿌다’, ‘ㄴ/는갑다’ 등과 같이 문법화를 겪고 있는 예들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선불리 판단할 수 없겠지만, 경남 방언 내의 강한 문법화 경향이 ‘쌓다’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 볼 수 있다.

끝으로 이 글이 많은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을 밝혀 둔다. 먼저 방언 조사의 제보자들에 관하여 그 수가 방언별로 균형적이지 못했다. 또한 용언을 분류함에 있어서 어떠한 이유에서건 체계성이 부족한 것은 큰 문제로 보인다. 각 용언 부류별 방언 분포를 기술함에 있어서도 그 설명이 다소 자의적이었다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보완한다면 ‘쌓다’의 문법화 정도에 대한 방언 분화를 깊이 있고 흥미롭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립국어원 편(2005~2013), 《지역어 조사 보고서》, 국립국어원.
- 김명희(1984), 국어 동사 복합화 과정에 나타나는 의미자질에 대하여(2), 《성신 연구논문집》 19, 181~193쪽.
- 김미영(1995), 문법화와 접어화, 《국어국문학》 14, 155~183쪽.
- 김영신(1998), 강조 보조용언 연구, 석사논문(이화여대), 32~41쪽.
- 목지선(2013), 보조용언 ‘쌍다’에 대한 연구, 《한말연구》 32, 35~57쪽.
- 문미경(2008), 현대국어 보조용언 연구, 석사논문(수원대).
- 박선옥(2004), 국어 보조동사 ‘대다’의 의미연구, 《한국어 의미학》 14, 149~167쪽.
- 이상태(1985), 국어 보조용언에 관한 연구, 《논문집》 39, 경북대학교, 195~208쪽.
- 이선웅(1995), 현대국어의 보조용언 연구, 석사논문(서울대).
- 이익섭·채완(1999), 《국어문법론강의》, 학연사, 117, 169쪽.
- 이현희(2002), 보조용언의 범주 분화와 접미사로의 이동, 《국어학》 54, 165-196쪽.
- 정승철(2013), 《한국의 방언과 방언학》, 태학사.
- 정언학(2006), 《상 이론과 보조 용언의 역사적 연구》, 태학사, 44~108쪽.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1987~1995), 《한국방언자료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어문실.
- Bybee, Joan(1985), *Morphology: A Study of the Relation between Meaning and Form*,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Hopper, Paul and Elizabeth Traugott(1993),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ein, Wolfgang(1994), *Time in Language*, Routledge.
- Smith, Carlota(1991), *The Parameter of Aspect*, Kluwer Academic Publishers.
- Vendler, Zeno(1967), Verbs and Times, *Linguistics in Philosophy*, Cornell University.